

“족보 사업에 반생을” (정 우영 형제)

서울 신전의 지봉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서 선교부의 최 준영 장로와 배닛 톨슨 장로는 일생을 조상의 계보 편집에 힘써 온 73세의 정 우영 형제에게 칭례를 베풀어 회원이 되게 하였다.

정 우영 형제는 70세가 넘었지만 20대의 젊은이 못지 않게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복음을 모르고 살아 왔지만 일생 동안 지혜의 말씀과 같은 건강의 규칙을 잘 지켜 왔기 때문이다. 특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계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 형제는 선조의 족보를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그는 고려조(1096AD)의 창시자에

까지 이르는 조상을 추적할 수 있으며 20만 명이 넘는 36대조까지의 계보를 완성했다. 그는 현재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 가족 계보를 가로로 다시 적고 있으며, 갖고 있는 기록중에는 360여 년이 넘는 것도 있으며 온 나라가 전쟁에 휘말린 제2차 세계 대전과 6.25동란을 겪으면서도 잘 지켜 왔다. 정 형제를 개종시킨 최 준영 장로는 자신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정 형제님을 가르치면서 정 형제님의 수천 명의 조상들도 우리와 함께 복음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전북부리 최 준영 장로, 정 우영 형제, 톨슨 장로



부산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 장면



말씀을 듣는 회원들

부산 스테이크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수정 와드에서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1983년도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니파이서서 31장 20절을 대회 주제로 택

한 이번 대회에서 한 인상 장로는 신권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신권 계보 사업, 그리고 신권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민 헤기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 상호간의 봉사과 사랑으로 잃어 버린 양을 찾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성인 모임에서, 김 치원 부장은 "우리 형제를 강화시켜야 할 책임", 설 양환 형제는 "우정 증진 및 가정 복음 교사의 역할" 그리고 김 선애 자매는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나"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끝으로 배덕수 형제는 "나는 내가 담당한 비활동 가족과 어떻게 우정 증진과 교육을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

“뛰뛰 군단” 출발

“뛰뛰 군단”이라고 스스로 별명을 붙인 한국 선교사 훈련원(KMTC) 제38기생 14명이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각자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들 중 신 영석 장로는 1979년 서울 선교부에서 6개월간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입대하여 3년간의 병역 의무를 마치고 다시 남은 선교사 기간을 끝마치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소정의 기간 동안 경전 공부는 물론 동반자와의 관계, 복음 전도 방법, 임지 적응 방법, 요리하는 법 등 그 밖의 많은 것을 배워서 선교 사업

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제38기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경록 장로(모진 지부), 김 봉석 장로(용현 와드), 이 희범 장로(주안 와드), 안 재혁 장로(미아 와드), 이 호상 장로(성남 와드), 서 석진 장로(반포 지부), 김 태석 장로(태능 와드), 신 영석 장로(울산 와드), 최 순영 자매(마천 지부), 박 영순 자매(신풍 와드), 서 수연 자매(담동 와드), 김 준애 자매(순천 지부), 김 애숙 자매(대명 와드), 이 경희(대현 와드) 이상 16명이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는 이 도환 감서 스테이크 부장이 수고하고 있다.

*

진출 중인 서울 신전을 위해 두고 뒷줄 왼쪽부터 이 경록 장로, 김 봉석 장로, 이 희범 장로, 안 재혁 장로, 이 호상 장로, 서 석진 장로, 김 태석 장로, 신 영석 장로, 앞줄 왼쪽부터 최 순영 자매, 박 영순 자매, 서 수연 자매, 김 준애 자매, 김 애숙 자매, 이 경희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역원 지지 광경



한복을 입은 상호 부조의 회원들이 합창 모습

서울 서 스테이크 1984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1월 21일과 22일 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약 800여 명의 회원들과 지도자가 참석하였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신권 역원 회에서는 180여 명의 신권 소유자가 참석하였으며, 성인 대회에서는 360여 명이 참

석하였다.

이번 대회 동안 말씀한 연사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자", "신전 사업과 계보 사업의 중요성", "상호 부조의 사명",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자", "새롭게 감시다" 등의 제목으로 말씀하였으며, 서울 서 선교부장인 켄슨 장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공동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였고, 칼으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특히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강조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40여 명의 상호부조회 합창단이 한복 차림으로 합창을 하여 더욱 모임을 빛내 주었다.

*

'83 우정의 밤 (부산 스테이크)

부산 스테이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부산 스테이크 내의 많은 신권 지도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1983년 한 해를 마무리짓는 우정의 밤을 수정 와드에서 가졌다.

부산 스테이크 부장단은 이 모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고등 평의원들의 도움이 컸다.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 가족도 함께 참여한 이번 모임에서 진행을 맡은 독신 성인들은 신권 지도자들의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1984년에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

아론 신권 및 청년 가요제 (서울 서 스테이크)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노량진에 위치한 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아론 신권 및 청년 가요제가 개최되었다.

"가을의 소리"라는 명칭으로 가요제를 개최한 청년, 청년들은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1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아름다운 것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삼도 와드의 강 미혜 자매, 이 현자 자매가 일등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등상은 "사랑해"를 부른 노량진 와드가 차지하였다. 심사 위원으로는 고 천석 형제, 신재구 형제, 서진원 자매가 수고하였다. *

가요제에 참여한 학생들



엄 은실 자매 금상 (제10회 전국 학생 동요 작곡 실기 대회)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2시부터 서울리타 국민 학교에서는 한국 동요 작곡회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학생 동요 작곡 실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이 시상식에서 영동 스테이크 반포 지부의 엄 은실 자매가 금상과 메달을 받았다. 11월 26일에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성악과 피아노 연주에 능한 엄 자매는 금년에 선화 예술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방배 국민 학교를 졸업한 엄 자매는 엄 길용 형제와 박 문자 자매의 장녀이다.

불우 이웃 돕기 (여수 와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부터 여수 와드의 아픈 신권 및 청녀와 독신 성인들은 연례 행사 중의 하나인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벌여 라면 10상자를 여수 시내 봉광동 동장에게 전달하여 동장이 추천한 가정에 라면 1상자씩을 전해 주었다. 여수 와드의 불우 이웃 돕기 행사는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1983년에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여수 와드가 위치한 봉광동에서 과자 판매를 하여 모금을 했다. *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전주 지방부)

지난 1월 21일 오후 4시부터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 지부에서는 전주 지방부 산하의 6개 지부 초등협회 어린이들의 재능 발표회가 있었다.

박 주인 지방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은 합창, 장기 자랑 그리고 무용 등을 발표하였는데 귀여운 어린이들의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 본 많은 회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경연에서 동 전주 지부가 종합 우수상을 받았다.

초등 협회 회원들의 활동 모습



광주 시민상 수상 최 송진 형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의 최 송진 형제는 지난해 10월 4일 새마을 운동과 의식 개혁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 시장으로부터 광주 시민상을 받았다. (제13103호)

또한 최 형제는 체육 교사로서 「스포츠 의학」에 이어 「건강 조깅」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지난해 11월 23일 관계 장학관과 광주시 교육감 및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 중·고등 학교에서 제2회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최 형제는 전남 체육회 육상 경기 연맹 이사로서 1982년 대한 체육회 회장상을 받은 바 있으며 1983년 4월까지 농성 와드 감독을 역임하였다. *

청남 청녀 중창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부터 도봉 와드에서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청남, 청녀 합동 신학연구원 중등부 모임 및 중창 대회가 열렸다.

서울 동 신학 연구원의 이 순철 교수가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한 후에 각 와드, 지부에서 청남 청녀가 출연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지정곡 29장과 자유곡 "천사들의 캐럴"을 부른 미아 와드가, 우수상은 지정곡 220장과 자유곡 170장을 부른 상계 제1와드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지정곡 29장과 자유곡 124장을 부른 도봉 와드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번 중창 대회의 심사는 조 병하 축복사와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이 맡았다. 참석 인원 95명. *